

韓國光學工業의 現況 및 發展方向



오 명 주
삼성항공산업(주)
광학사업본부장

1. 머리말

協會誌의 創刊과 더불어 우리 光學人의 協力이 더욱 堅實해져 우리 光學業界의 發展 契機가 되리라 믿으며, 이를 위한 光學人의 同參과 奮發이 더욱 切實하다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協會誌 發刊이 國內業界의 發展에 크게 寄與하리라 믿으며, 協會誌 創刊을 契機로 國內光學工業의 發展을 위하여 國內業界의 現況을 살펴보고 평소 본인이 생각하던 國內光學業界의 發展方向에 대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합니다.

2. 國內 光學工業의 現況

오늘날 카메라는 光學, 機械, 電子技術 등을 統合한 시스템技術分野로 附加價値가 높고, 勞動·技術集約的인 製品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賦存資源은 不足하지만 優秀한 技術人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 適合한 工業分野입니다.

이러한 카메라工業은 10여년전만 하여도 先進工業國에 의해 獨占되어온 탓에 開途國으로서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領域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國內 少數의 業體가 비록 外國

技術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果敢히 挑戰하여 이제는 賣出 1,000億원이 넘는 堂堂한 產業領域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國內業界의 氣概는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世界市場에서 既存의 強力한 先進카메라業體와 競爭을 하는 段階로 들어섰습니다.

國內業界의 現況을 살펴보면 '79年 三星航空의 카메라分野 進出로 그 領域이 開拓되기 始作하여 '83年 東速光學, '86年 亞南精密 '87年 金星社 等 國內精密業界의 有數業體들이 차례로 카메라産業에 參與함으로써 國內에 密搬入되던 外國產 카메라를 驅逐하게 되었으며, '80年代初 100億원에 불과하던 內需市場도 이제는 1,000億원 規模로 擴大되었고, 國內業體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世界市場을 舞臺로 活路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國內業界의 刮目할 만한 成長은 量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質적으로도 크게 伸張되었는데, 지난 10여년간 刻苦의 努力끝에 未洽하기는 하나나 中級技術水準의 自體브랜드의 카메라를 獨自開發하는 水準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業體가 光學技術研究組합을 結成하여 보다 높은 次元의 技術을 共同으로 研究하고 있습니다.

現在 世界카메라市場은 日本이 全體의 70% 程度를 供給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를 後發開途國이 低價品 爲主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우리 業界의 共同努力이 結實을 맺게 되면 앞으로 世界市場에서 큰 成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 確信합니다.

그러나 世界市場에서 우리의 位置를 浮刻시

키기 위해서는 우리 業界가 共同으로 解決하여 할 課題가 아직도 많은 實情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技術力의 培養을 들 수 있는데, 國內카메라業體는 早速한 基盤構築을 위하여 日本技術導入을 爲主로 事業을 展開해 온 탓으로 自體技術力이 不足하여 世界市場에서의 競爭力이 微弱한 實情입니다.

따라서 尙간에서의 國內 카메라業體들이 日本業界의 代理戰爭을 치른다는 憂慮도 우리로서는 뼈아픈 自省의 소리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技術人力의 確保問題를 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여러 分野의 技術이 綜合되어 生産되는 高度精密의 시스템製品으로서 多様な 分野의 高級技術人力이 必須의임에도 不拘하고 國內實情으로는 이러한 與件이 제대로 充足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째, 生産性 및 生産基盤 構築도 큰 問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國內業界는 대체로 世界先進業體와 比較해 볼 때 그 規模가 零細하고 生産規模가 脆弱하여 生産性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째, 輸出競爭力 確保도 큰 問題라 하겠습니다. '80年代初 100億원 規模의 內需市場이 1,000億원 規模로 놀라운 伸張을 거듭하였으나, 이제는 內需의 停滯가 豫見되는 바 國內 카메라業界의 本格的인 成長을 위해서는 國際市場 進出이 不可避한 實情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圓高現象, 輸出支援의 縮小와 輸入自由化 등의 諸般與件과 劣惡한 國際貿易摩擦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業界의 國際市場進出에 더욱 큰 어려움이 豫想됩니다.

끝으로 事業의 多角化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光學業界는 單一製品인 카메라만을 주로 生産하고 있는데 光學産業의 均衡있는 發展을 期하기 위해서는 光學技術과 그 應用技術을 바탕으로 카메라 以外の 應用分野의 開拓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 國內 光學工業의 發展方向

앞에서 指摘한 諸般 問題點을 解消하고 國內

光學業界의 內實있는 發展을 追求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協會의 當面한 役割이라 생각됩니다.

後發의 立場에서 先進業體와의 技術隔差를 早速히 解消하고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國內業體들간의 技術協力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業界는 이미 光學技術研究組合을 結成하여 카메라分野의 高級技術에 대한 共同研究를 試圖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深化·擴大시켜 기필코 自立技術基盤을 確立하여야 하겠으며, 産·學·研의 共同研究體제도 조속히 마련하여 技術情報交流에 拍車를 가함으로써 技術力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共同研究를 통해 技術基盤이 確立되면 이를 바탕으로 SHUTTER 등의 核心部品 共同生産 方案도 摸索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共同研究, 技術情報交流, 協力體制構築은 光學産業을 위해 必須의인 光學技術人力의 確保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生産性 向上을 위해서는 國際水準의 生産規模를 갖추는 것도 重要하지만 무엇보다도 部品生産業體의 養成과 外注業體의 專門·系列化를 통한 協力體制 構築이 時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各 組立業體들도 각기 그 나름대로 努力하여야 하겠으나 協會를 中心으로 적극 推進되어야 하며, 業體는 이와 別途로 自體모델 開發에 最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맺음말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與件속에서 놀라운 成長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難關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諸般問題를 協會를 中心으로 一致團結하여 協力함으로써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努力이 結實을 맺게 되어 國際競爭隊列에서 當당히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確信합니다.

光學協會誌가 創刊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方들의 勞苦에 感謝드리며, 光學産業의 發展을 위해 協會 任職員 여러분의 奮發과 會員社의 뜨거운 聲援을 當부드립니다.